

象의 概念과 韓醫學的 適用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朴贊國

I. 序論	93
II. 本論	93
1. 事物 認識의 궁극적 목표	93
2. 理에 대한 認識 과정	96
3. 象의 개념과 특성	98
4. 象의 종류	99
5. 象學의 과정과 목표	101
6. 象의 韓醫學的 適用	103
III. 結論	108
參考文獻	109

象의 概念과 韓醫學的 適用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白裕相 朴贊國

ABSTRACT

The concept of Sang(象) and its application in the Oriental Medicine
They say Yök'ak(易學) is the root of Oriental studies. This means philosophy, astronomy, geography, medicine, music, numbers are all based on Yin-Yang, and Five phases theory of Yök'ak. Nowadays studies are very much specialized but as we go back to old times, we cannot clearly set these studies apart. All the studies can be comprehensively understood with Yök'ak(易學). The original purpose of Yök'ak is to predict future with highly symbolized signs, Sang-Su(象數). However you cannot fully understand Yök'ak without knowing the principle of change in Sang-Su itself. We have to keep thinking about how we should further study Yök'ak, treat diseases with Sang-Su, and how Sang-Su can be used in medicine. As a previous step to this process, I will consider relationship of Yök'ak and medicine in this paper. This study will help us to set the goal and method in studying medicin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following: 1.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a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the subject. The principle of every subject can be turned into principle of changes in the universe. This principle is not affected by time nor space. It is only seen through the changes of subjects. 2. The reason we cannot easily understand the principle is that we have biased mind. How we should overcome this is through developing virtue, and by keep inspecting things over and over. 3. We see the outcome of changes inside but we should not neglect the principle. Therefore we see the principle through Sang. Sang is in between Principle(理) and Things(物), thereby has characteristics of both. Which means it is much like Principle but specific Things is related and it is much like Things but it is not easily understood. 4. There are various kinds of Sang. Mind-Sang(心象) is an image that comes before expressing it with symbols or words. When it is expressed in symbols or words, it is no longer considered as same Sang. Sang in symbol are Kwaesang(卦象), Hyosang(爻象) and Sang in words is Kyesa(繫辭). The characteristic of all these Sang is that it cannot be explained through the logics. 5. If we call Sanghak as the study with Sang, the method is same as that of understanding the principle. The fundamental purpose of Sanghak is to understand the principle of things and then apply this principle to the practical world so that the world can be a better place. So I would say Sanghak is the study of a saint and a ruler. 6. Since the object of medicine is

human being who are the mixture of Principle and Ki, we can use Sang which is also related to both Principle and Ki. Actually terms we use in Oriental medicine are not easily understood without the knowledge of Sanghak. 7. When we diagnose a patient, we are looking for Sang that comes from the body inside. When we do the treatment, we cannot neglect the original change that's happening in our body. Therefore studying Sang is a necessary step to do the full diagnosis and treatment. 8. The method of studying medicine is first to get rid of biased mind, taking right Sang from various classics and then apply those Sang to actual situations.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 序論

易學이 동양 학문의 뿌리가 된다는 말은 哲學, 天文, 地理, 醫學, 音樂, 數理 등의 여러 학문 분야의 기반이 易學의 陰陽五行 思想에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학문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나 고대로 올라갈수록 서로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하나의 체계로 합해지게 되고 그 정점에 易學 思想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易學의 본래 목적은 象數라는 고도의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점을 쳐서 人事의 吉凶을 예측하는데 있다. 그러나, 象數가 담고 있는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으므로 다시 그 義理를 궁구해나간 것이다.

醫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易學의 義理를 궁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象數를 활용하여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가, 또는 象數의 활용이 다른 醫學 理論과 治療 방법들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연구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象學을 易學의 한 형식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다시 醫學에 적용해봄으로써 醫學과 易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醫學 공부의 목표와 방법에 대하여 그 대강은 설정해

II. 本論

1. 事物 認識의 궁극적 목표

1) 공부의 목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많은 지식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과 관련된 지식들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여 생활해나간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고 약간의 생각을 덧붙이는 정도로도 우리는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 가까운 가족이나 먼 친척들, 또는 公的인 일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능력도 뛰어나며 인간 관계도 원만하다면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평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겪고 또 반성과 후회를 한다. 이러한 실패는 기존에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막기가 어려우므로 대부분

의 사람들은 하늘의 운을 바라거나 또는 점을 쳐서 예측해보기도 하는 것이다.

실패를 겪게 되는 경우는 보통 기존의 지식을 믿고 의지하여 행동하다가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서 고쳐나가게 된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면 바뀌는 상황마다 일일이 대처하기보다는 변화의 저변에 있는 근본적이 이치를 궁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변화의 원리를 찾고자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실패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치를 찾는 것은 아니다. 仁義의 실행을 통하여 자기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거나 단순한 진리 탐구의 호기심으로 이치를 구하기도 한다. 어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배우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인식하는 나가는 과정 즉,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치(理)를 알고자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學者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도 어렵듯이 어떤 이치가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을 알고자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은 그것을 행하고 있다.

《大學》에서는 공부의 과정을,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格物致知誠意正心과 자신이 얻은 것을 인간사회 속에서 구현하는 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先後가 정해져있는데 1) 그것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를 말한 것은 아니고 공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한 것이다. 즉, 모든 공부의 중심과 시작은 格物致知에 있다는 것이다. 格物致知란 나를 둘러싼 모든 事物과 맞부딪쳐서 그 속에 담긴 理를 다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으로 볼 때 전통적인 공부의 과정에 있어

1) “格物而后에 知至하고 知至而后에 意誠하고 意誠而后에 心正하고 心正而后에 身修하고 身修而后에 家齊하고 家齊而后에 國治하고 國治而后에 天下平이니라”라고 하였다.

서도 事物 속에 담긴 이치(理)를 알아내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2) 궁극의 理

理는 그것이 어떠한 대상을 설명해내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물질이 운동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물리, 화학적 법칙들이 있으며,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장경제의 법칙도 있고,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도덕, 규범, 행동양식 등도 있다. 또한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람이 생명을 영위해나가는 원리인 生理가 있고, 질병이 발생하여 진행되는 원리인 病理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법칙들은 대개 언어나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특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들어, 뉴우튼의 力學法則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巨視世界에서만 적용되는 운동법칙이며 소립자와 같은 微視世界로 들어가면 다시 量子力學의 이론으로 설명해야만 한다. 만약에 量子力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다른 세계가 발견된다면 다시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경제법칙도 현실의 변화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힘들므로 기존의 법칙에 실제로 얻은 data를 다시 첨가하여 보정하고 다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야 한다. 도덕규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孝를 행하는 것과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弟),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忠) 등은 각각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행동양식들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칙들은 언어나 수식으로 표현됨으로 인하여 이미 어떠한 조건에 지배를 받으며 실제로 특수한 현실 상황에서 유의성을 얻게되는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표현된 모든 법칙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법칙은 존재하는가? 부모에게 昏定晨省²⁾을 하는 것은 하

나의 행동양식과 규범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행했다고만 해서 '孝'를 실천했다고 할 수는 없다. 孝는 그보다더는 더욱 막연한 무엇이다. 또한, 밖에 나가서 윗사람을 공경해야 함을 말한 '弟'도 孝와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표현이다. 만약에 현실 속에서 孝를 해야 할 것인가, 弟를 해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선다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孝弟는 크게 보면 사람 서로간의 마음을 편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그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상황에 맞추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서로간의 관계가 원만한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같은 類에 屬하여 근본적으로 서로 親하고자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親疎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 萬物을 生成하는 宇宙의 運動 變化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구체적인 행동양식도 그 마땅함을 따져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는人間과 宇宙의 運動 원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치가 존재하지만 궁극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치는 간단해지면서 天地의 운행에 근접하게 된다. 《繫辭上》〈第一章〉에서 “乾以易知오 坤以簡能이니 易則易知오 簡則易從이오 易知則有親이오 易從則有功이라” 하였다. 즉, 하늘은 가장 쉬운 이치로서 알려주며 땅은 하늘이 알려준 것에 대하여 가장 간략한 방법을 통하여 능히 일을 해낸다는 것이다. 이치가 쉽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방법이 간략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좇아할 수 있다. 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친함이 생기고 쉽게 좇아 일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功이 생기게 된다.

이 궁극의 理는 언어와 수식 또는 기호로는 표현

2) 《禮記曲禮》에 나오는 말로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안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없다. 언어, 수식, 기호는 드러난 현상의 變化를 표현한 것인데, 理는 우주의 모든 變化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變化 자체가 될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理가 하나의 변화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은 만고불변의 이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老子》에서 “道가 가히 변할 수 있는 道(可道)라면 몇몇한 道(常道)가 아니다3)”라고 하였다. 이 궁극의 理는 모든 變化를 일으키는 출발점이며 宇宙에 속한 모든 事物이 이 원리에 따라 운동하므로 결국 ‘宇宙變化의 原理’라고 할 수 있다. 이 우주변화의 원리는 時空의 특수성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을 떠나있으므로 無色, 無味, 無臭이며 인간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는 영역의 밖에 있다. 고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인 인간의 사고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 언어, 기호, 수식으로 표현된 이치라면 그것은 궁극의 理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 앞에서 말한 물리, 화학의 법칙이나 사회법칙, 개인의 도덕규범들은 모두 궁극의 理로부터 파생되어 인간의 사고를 거쳐 변환되어 나온 것으로 특정한 시간, 공간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

3) 理의 드러남

앞에서 궁극의 理는 時空의 차원을 떠나있으므로 인간의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陰陽으로 분화 발달되기 이전의 太極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4). 太極은 끊임없이 운동하는 宇宙의 本體를 말한다. 이것이 陰陽으로 분화발달

3) “道可道, 非常道.”에서 可道の 道를 말한다. 표현한다. '로 보통 해석하나 여기서는 可道를 '可變之道'로 보고 可道와 常道를 대비하였다.

4) 여기서 분화발달은 시간적인 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時空을 초월한 太極이 인간의 認識 과정을 통하여 陰陽으로 파악되어 현실속에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즉, 宇宙가 끊임없이 陰陽運動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本體인 太極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되면 이미 그것은 어느 정도 인간의 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다. 陰陽 이전의 것을 또한 '神'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繫辭上》(第五章)에서 "陰陽不測之謂, 神.(陰인지 陽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이룬 것이 神이다.)"이라 하였으니, 神이란 바로 陰陽으로 나뉘어 파악할 수 없는 太極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太極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상은 바로 事物이다. 物은 形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五感を 통하여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며, 事는 이러한 物과 物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事物도 물론 계속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분명한 모양과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事物의 生成은 氣의 離合集散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宇宙를 구성하는 萬物은 氣의 세계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우주 변화의 궁극적인 理는 바로 이러한 氣의 세계를 벗어나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太極의 상태인 것이다.

궁극의 理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는 氣를 통하여 드러나므로 우리는 事物의 變化를 통하여 理를 간접적으로 인식한다. 계절과 밤낮의 변화, 마음과 몸의 변화, 가족과 사회 속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르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궁극의 理는 아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理가 현실(氣의 세계)이라는 옷을 입고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만약, 時空을 초월한 聖인이 있다면 궁극의 理를 곧바로 볼 수 있을 지도 모르나, 보통의 사람들은 현실의 변화 속에서 그 밑바탕에 있는 理를 어렴풋이 느낄 뿐이며, 또한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事物에만 얽매어 그것을 쫓아가기에 급급할 뿐이다.

2. 理에 대한 認識 과정

1) 理 인식의 출발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理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이 宇宙變化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自我의 의지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生物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生物 즉, 生命을 갖고 있는 存在의 본성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宇宙로부터 분할되어 하나의 독립된 개체를 이루고나서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며, 다시 時間과 空間의 한계(死)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족을 번식해나간다. 동식물이나 사람이 하는 모든 본능적인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유지해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氣立之物은 자연의 변화에 비교적 잘 적응하여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자연변화의 엄청난 위력을 이길 수 없으므로 그것에 순응하고 그 속에서 삶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것일 뿐이다. 神機之物은 陰陽의 제약을 벗어난 精神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에 거슬러 행할 수 있으나 그 일차적인 목적은 역시 자신의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나'만을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事物을 포괄하는 우주의 이치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보면 결국에는 外物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時空의 변화에 따라 내가 하고자하는 방향과 주변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그 속에서 갈등이 생겨난다. 다행히 物我의 움직임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면 상관이 없으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進退兩難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없는 절박한 국면에 처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사

람의 조언을 구하거나 神에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점을 쳐보기도 한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事物의 裏面에 있는 變化의 原理를 궁구하고자하는 마음이 썩트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치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우 드무니 이러한 사람을 聖人이라 한다. 이른바 聖人이란 바로 자신의 욕망과 편견을 버리고 陰陽 변화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에 순응하고, 사물과 인간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변화에 순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 환경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外物이 변화하는 이치를 파악하여,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다.

2) 理 인식의 과정

理를 깨닫는 사람 즉, 聖人の 경지를 공부의 목표로 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聖人이 될 수 있는가? 앞에서 理가 외부로 드러날 때는 항상 事物의 변화를 통한다고 하였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궁극의 理를 깨닫기 위해서는 時間과 空間에 얽매인 인간의 사고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사람으로는 힘든 일이다. 따라서 事物의 變化를 살펴서 그 속에 내포된 이치를 알아내야 한다. 이를 格物致知라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事物의 變化를 자세히 관찰한다 하더라도 그 속의 간단한 이치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의식이 變化를 살피지 못하고 고정된 현상세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사물 변화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聖人은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事物들의 본질과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놓았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제도

와 문물들을 발명해 놓았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인이 남긴 典籍이다. 성인의 典籍은 사물 변화의 이치를 우리가 인식하기 쉽도록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에 따라 행동하였을 때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의 指標인 것이다. 《繫辭上》(第二章)에서 “聖人이 設卦하여 觀象繫辭焉하여 而明吉凶이라.”라고 하였다. 복희씨라는 성인이 하늘로부터 象을 취하여 卦를 만들었으며 그 후에 文王과 周公이 그 卦에 辭를 달아 세상일들의 吉凶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周易》도 성인이 남긴 典籍의 하나로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여 변화의 이치를 깨달을 수도 있으며 占을 쳐서 吉凶을 결정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聖人の 가르침을 공부하는 방법상에서, 먼저 자신의 욕심과 편견을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典籍의 내용을 두루 살펴서 각각의 이치를 따져보아야 하는가의 논란이 있었다. 이른바 朱子와 陸象山의 ‘尊德性’과 ‘道問學’의 논란⁵⁾이 그것으로, 욕심과 편견을 없애서 心性을 깨끗이 하는 것을 ‘尊德性’이라고 하며 묻고 배우는 것을 공부의 방법으로 삼는 것을 ‘道問學’⁶⁾이라 한다. 陸象山은 마음이 곧 이치이므로(心即理) 사람의 本心을 밝혀서 먼저 大體를 세워야 하니(先立乎其大), 事物로 나아가(即物) 폭넓게 배우고 세밀하게 분석하는 朱子の 공부 방법론은 번잡하여 잘못된 여지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朱子는 心은 理가 거처하는 장소일 뿐이고 그 자체로 理가 될 수는 없으며, 마음의 사사로움과 욕심은 쉽게 없앨 수 없으므로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外物로 나아가 이치

5) 尊德性和 道問學은 《中庸》(제27장)에 나오는 말로 “君子는 尊德性而道問學이니 致廣大而盡精微하며 極高明而道中庸하며 溫故而知新하며 敦厚以崇禮니라.”라고 하였다.

6) 道는 ‘말미암다, 방법으로 삼다’의 뜻이다.

를 궁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실적으로 두가지 방법의 先後를 결정하기는 힘들며 《中庸》에서 본디 말한 요지는 두가지를 모두 겸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변화하는 事物에는 理가 담겨 있으므로 心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살핀다면 理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物欲에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므로 그것만으로는 비현실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스승에게 묻고 성인의 가르침을 배워서 잘못된 판단을 수정해나가는 방법을 겸해야 하는 것이다.

즉, 공부의 과정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성인의 행동과 가르침을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면의 이치를 알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에 나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理에 대한 인식을 象이라 한다.

3. 象의 개념과 특성

개별적인 事物에 나아가 그 속에 담긴 理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서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을 象이라 한다. 朱子は 《本義繫辭上》(第二章)에서 “象者, 物之似也.”라고 하였고, 《繫辭下》(第三章)에서는 “易者, 象也. 象也者, 像也.”에 대하여 “易, 卦之形, 理之似也.”라고 주하였다. 象이 物之似이면서 理之似라는 것은 象이 物과 理의 중간자라는 뜻이다⁷⁾. 物之似라는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의 얼굴 모양은 제각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다른 여러 생물들 중에서 ‘사람’이라는 種으로 분별해낸다. 이 때 우리의 머리 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로 사람에 대한 象이다. 사람의 상에는 사람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행동양식, 빛깔, 말소리, 냄새 등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있다. 이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일 뿐 실제 사람은 아니므로 物之似라 하였다. 仁을 心之德이요 愛之理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仁에 대하여 다시 풀어서 설명한 말일뿐 仁을 온전히 설명해내지는 못한다. 다만, 우리의 마음 속에 仁은 막연히 이러한 것이리라는 象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理之似라는 것은 象의 궁극적 대상이 理이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 존재하여 時空의 차원을 떠난 궁극의 理는 아님을 말한 것이다.

象은 理와 事物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양쪽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象이 갖고 있는 理에 가까운 성질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를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논리적 사고는 事物의 영속성에 기반하고 있다. 논리적 사고란, 우선 事物의 특성과 서로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것을 命名하고 그 의미를 定義하며, 그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論法으로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⁸⁾. 그러므로, 논리적 사고로는 변화의 이치를 알아내기 힘들며 오히려 事物의 본질을 알아내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象은 物보다는 理에 가까우므로 논리적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표현할 수도 없다. 또한, 象이 理보다 物에 가까운 이유는 理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조건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즉,

7) 《繫辭上》(第十一章)에서 “見乃謂之象, 形乃謂之器, 制而用之謂之法, 利用出入民咸用之謂之神. ((理기) 드러나는 것을 일러 象이라 하고, 모양을 이룬 것을 일러 器라 하며, (器들) 만들어 쓰는 것을 일러 法이라하고, 이롭게 써서 들고 나는데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일러 神妙하다고 한다.)”이라 하였다. 즉, 象은 아직 형태를 가진 事物이 아님을 말한다.

8) ‘논리’의 의미를 인간의 사고를 통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넓게 정의한다면, 비유과 상징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三段論法에 의하여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象, 仁에 대한 象은 내가 사람과 仁에 대해서 각각 그 이치를 추구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理는 대상이 없으나 象은 대상이 있다. '나'라는 주체가 나에게 주어진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事物의 이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事物의 象이 나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象은 時空의 차원을 떠나있는 中극의 理보다는 物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象이 형성되는 과정은 마치 天地人 三才의 관계와 비슷하다. 理를 天이라 하고 物을 地라 한다면,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사이로 끼어들어가(參) 物을 통하여 理를 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象이 만들어진다.

象이 理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理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올바른 象과 잘못된 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이 모두 象이라고 할 수는 없다. 象은 事物의 이치를 정확히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繫辭上》(第十章)에서 "以制器者, 尚其象.(易으로써 문물과 제도를 만드는 자는 象을 숭상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聖인이 卦象을 보고서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문물과 제도를 만들어낸 것을 말한다. 즉, 象이 정확히 理를 담고 있어야 그로부터 이치를 다시 풀어낼 수 있는 것이다⁹⁾.

4. 象의 종류

象이 理之似라고 하였을 때 그 理의 中극은 곧, 宇宙變化의 原理이다. 그러므로, 聖인이 처음에 天地의 變化로부터 象을 觀한 것이다. 《繫辭上》(第一章)에서 "在天成象, 在地成形, 變化見矣.(하늘에서는 象을 이루고 땅에서는 形을 이루어 이에 변화가 드러난다.)"¹⁰⁾라고 하였다. 여기서 天이 만

들어낸 象이란 구체적으로는 日月星辰의 운행을 가리키는데¹¹⁾, 이것을 좁게 본다면 占을 칠 때 나타나는 어떠한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것 보다는 밤과 낮이 번갈아 이르고 해, 달, 별이 뜨고지는 평범한 運行을 말하는 것이다. 聖인이 그것을 보고 宇宙의 모든 事物을 변화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陰陽의 運動으로 표현하였다. 즉, 日月星辰이 運行하는 것이 宇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드러난 象으로 가장 간략하면서도 변함없는 이치를 나타내 준다고 본 것이다.

聖인이 宇宙의 본체인 太極으로부터 陰陽의 象을 취하여 陰爻와 陽爻로 표시하였는데, 이 때의 爻는 마음 속에 떠오르는 象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의 기호로서 표현된 것이다. 陰陽이 분화발전하여 이루어진 卦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구체적 形狀을 가진 이상 진정한 의미의 象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인간의 논리체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호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된, 象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기호로 나타난 象을 다시 언어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文王의 彖辭, 周公의 爻辭, 孔子의 十翼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것도 역시 象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象과 卦와 辭의 관계에 대하여 《繫辭上》(第十二章)에서는 "聖人, 立象以盡意, 設卦以盡情偽, 繫辭焉以盡其言, 變而通之以盡利, 鼓之舞之以盡神.(聖인이 象을 세워 뜻을 다하였고, 卦를 베풀어 참과 거짓을 다하였으며, 글을 매어서 그 말을 다하였고, 變通하여 이로움을 다하고 鼓舞하여 神妙함을 다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象은 陰爻와 陽爻의 象을 말한 것이다. 朱子は 《本義》의 주

9) 象으로부터 다시 이치를 취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象은 지금의 '정보'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0) 《繫辭上》(第五章)에서는 "成象之謂, 乾, 效法之謂, 坤.(象을 이루는 것을 이른 것이 乾이오, 法을 본받는 것

을 이른 것이 坤이다.)"이라 하였다. 象을 이루는 天과 法을 본받아 形을 이루는 地의 작용을 각각 乾, 坤이라 이른 것이다.

11) 朱子は 《本義》에서 "象者, 日月星辰之屬"이라 하였다.

석에서 “言之所傳者淺，象之所示者深.(말의 전하는 바는 얇고, 象의 보이는 바는 깊다.)”라고 하여 말로 드러난 것은 그 의미가 제한되어 있어 이치를 전달하기 힘들며 象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담고 있는 이치가 깊다고 본 것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心象

心象이란 마음 속에 떠오르는 象으로서, 앞에서 陰陽의 爻로 표현되기 이전에 聖인이 日月星辰의 변화를 보고서 마음 속에서 그린 宇宙의 변화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繫辭上》(第八章)에서 “聖人，有以見天下之賾，而擬諸其形容，象其物宜.(聖인이 밝은 지혜를 가지고 天下의 뒤섞임을 보아 그 각각의 形容에 근거하여 그 事物의 마땅함을 象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聖인이 卦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 것으로, 伏羲가 天下의 萬物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속에서 하늘, 땅, 물, 불, 산, 연못, 바람, 우뢰의 象을 취하여 그것으로 八卦를 만든 것을 말하였다. 이때 八卦로 표현되기 이전의 象을 心象이라 한다. 心象은 아직 마음 속에 머물러 있고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활용될 수가 없으나 理에 가깝다는 점에서 象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卦象과 爻象

心象이 기호로서 표현된 것 즉, 爻와 卦 자체가 象이다. 陰爻와 陽爻 자체가 하나의 象이며 一生二法¹²⁾에 의하여 분화발전된 八卦와 六十四卦가 모두 象이다. 또한, 하나의 卦를 구성하는 爻들도 각각의 象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卦는 전체적

12) 하나의 太極에서 둘의 陰陽이 나오는 이치로 계속하여 四象, 八卦로 분화발전하게 된다. 《繫辭上》(第十一章)에서 “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陰陽)를 낳고 兩儀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는다.)”라고 하였다.

인 象을 가지고 있으나 卦를 구성하는 爻는 그 위치와 정황에 따라서 象이 달라지므로, 卦象은 體라 할 수 있고 爻象은 用이라 할 수 있다. 《繫辭下》(제12장)에서 “八卦以象告，爻象以情言，剛柔雜居而吉凶可見矣.(八卦는 象으로써 알려주고, 爻와 象은 실제의 정황으로써 말해주시고, 剛柔가 섞여 자리잡음에 吉凶을 가히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卦爻나 그밖의 기호로 표시된 象은 비록 그 모양이 드러나 있으나, 보통 사람은 논리적으로 그 속에 포함된 이치를 밝혀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卦爻 자체가 象에 속하는 것이다.

3) 辭

辭는 卦爻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聖인이 다시 풀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각각의 卦, 爻에 매달아 놓은 말이라고 하여 繫辭라고 하였다. 《繫辭上》(第三章)에서 “彖者，言乎象者也。爻者，言乎變者也.(彖辭은 卦의 象에 대하여 말한 것이며 爻辭는 爻의 變化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彖辭과 爻辭는 卦爻의 象을 말로 설명한 것이며 공자의 傳은 다시 彖辭, 爻辭를 풀어 설명한 것이다. 朱子는 卦辭의 대부분은 占辭¹³⁾로 되어 있으며, 爻辭는 象占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元亨利貞’에 대한 주석에서 “文王所繫之辭，以斷一卦之吉凶，所謂彖辭者也.(文王이 매어놓은 말로서 이것으로 한 卦의 吉凶을 판정하니 이른바 彖辭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爻辭인 ‘潛龍勿用’에 대한 주에서는 “初陽在下，未可施用，故其象爲潛龍，其占曰勿用.(初陽은 아래에 위치하여 아직 가히 펼쳐 쓸 수 없으므로, 그 象은 潛龍이 되고 그 占을 쳐서는 쓰지 말라고 판정한다.)”이라 하여 潛用을 象으로, 勿用을 占辭로 나누어 보았다.

앞에서 象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는 파악할 수

13) 吉凶을 판정한 말이다.

없는 것이라 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논리적 구조로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비논리적 언어는 주로 비유와 상징을 통하여 해석된다. 위에서 潛龍이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말인 것이다. '쓰지 말라.'는 말도 막연한 표현이지만 占을 쳐서 이 뜻가 나왔을 때에는 자신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뜻이므로 潛龍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말이라 할 수 있다. 《繫辭上》(第二章)에서는 "吉凶者, 失得之象也, 悔吝者¹⁴⁾, 憂虞之象也.(吉凶은 잃고 얻음을 나타낸 象이고, 悔吝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象이다.)"라 하였다. 吉凶, 悔吝도 현실 속에서 잃고 얻으며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象으로 나타낸 말이다. 이와 같이 周易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繫辭下》(第三章)에서 "易者, 象也.(易은 象이다.)"라고 한 것이다.

5. 象學의 과정과 목표

1) 象學의 과정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말과 글을 배우고 익히며 사교의 방법이나 행동양식 등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식과 규범들을 배우고 익히며 모방하는 단계이다. 三代에 小學에서 가르쳤던 灑掃應對進退之節과 禮樂射御書數之文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聖인이 만들어 놓은 학문체계와 제도문물을 배우는 것이다. 다음 단계인 大學에서는 窮理正心修己治人の道를 가르쳤다. 즉, 聖人の典籍을 배우고 익히는 모방의 단계를 지나면 이치를 궁구하여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닦아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다. 理를 궁구하는 방법은 《中庸》에서 말한 대로 德性을 공경하며 받들고 事物로 나아가 묻고 배워서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尊德性而道問學). 즉, 마음의 욕심과 편견을 버린 상태에서 事物로 나아가 그 象을 觀하여 내면에 있는 理를 깨닫는 방법이다.

周易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繫辭上》(第二章)에서 "君子 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是以自天祐之, 吉无不利.(君子는 혼자 수양할 때에는 卦爻의 象을 보고 그 의미를 음미하다가 세상에 뜻을 펼칠 때에는 卦爻의 變化를 보고 占의 결과를 음미하니, 이로써 하늘로부터 도와 吉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각각의 卦爻가 가지고 있는 象과 聖인이 설명한 繫辭의 象을 마음 속으로 그려서 그것을 통하여 현실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繫辭上》(第十章)에서는 "易, 无思也, 无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非天下之至神, 其孰能與於此.(易은 생각함도 없고 함도 없어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感應하면 마침내 天下의 근원에까지 통하게 되니 天下의 지극한 神이 아니라면 그 누가 능히 여기(天地之間)에 參與하리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음 속에서 논리적 사고(분별심)이나 사사로운 생각, 物欲 등을 없애야 理와 통할 수 있으며, 또한 陰陽不測한 神의 경지에 도달하여 天地間에 參與할 수 있다는 것이다. 朱子는 乾卦의 '元亨利貞'에 대하여 占辭로 풀어서 "乾卦는 크게 형통하니 바르면 이로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도 역시 占을 쳐서 乾卦가 나왔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貞)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2) 象學의 목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14) 悔는 凶에서 吉로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여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말하며, 吝은 吉에서 凶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불리한 처지를 모면하기에 급급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서 시시각각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현실에 대처한다. 기존의 지식이란 이미 聖賢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것을 좇아서 행한다면 자연의 순리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그러한 지식에 얽매어 변화에 대처해나간다면 반드시 실패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理를 궁구하는데 뜻을 둔 學者라 하더라도 궁극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소견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편협된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繫辭上》(第五章)에서 “仁者見之, 謂之仁. 知者見之, 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 鮮矣.(仁者是 道를 보고 仁이라 하며, 知者は 道를 보고 知라 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道를 쓰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니, 때문에 君子의 道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였다.

보통 사람들은 道를 알지 못하면서도 큰 불편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治者 즉 聖人の 경우는 다르다. ‘나’라는 개인은 주변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나가면 그만이지만, ‘내’가 公人이 되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조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大衆(mass)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변수가 많고 변화가 다양하여 예측이 힘들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피해도 훨씬 크게 나타난다. 마치 큰 배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治者は 事物의 저변에 있는 變化의 이치를 궁구하고 미세한 변화에도 대처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事物의 이치는 象을 통해 드러나므로 象學은 곧 治者의 학문이며, 聖人이 象을 觀하여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周易이니 周易이 곧 象學이며 治者의 학문이다. 특히, 周易의 象學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事物의 極微한 변화까지 알아

내야하는 고도로 발달된 체계로서 옛부터 통치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었다. 실제로 殷代부터 天子가 전쟁, 농사, 제례의식 등과 같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에는 占을 쳐서 결정하였으니, 占의 결과는 國事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聖人이 나라를 통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大學》에서는 그것이 明德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하며 지극한 善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한다고 하였다. 明德의 明은 天理를 상징하는 것이며 德은 地上에서 구현된 法을 말한다. 결국 聖人은 우주의 근본 이치를 밝혀서 그것을 세상에 펼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繫辭上》(第十一章)에서 “夫易, 何爲者也. 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무릇 易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무릇 易은 物을 열어 일을 이루는 것이니 易이 天下의 道를 포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開物이란 사물 속의 이치를 펼쳐내는 것이고 成務란 그 이치를 현실에 적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이니 모두 治者가 하는 일이다. 聖人 卦象을 가지고 制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伏羲氏가 離卦에서 象을 취하여 새끼를 엮고 그물을 만들어 들짐승과 물고기를 잡았으며, 神農氏가 益卦에서 象을 취하여 나무를 깎아 따비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보습을 만든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¹⁵⁾. 聖人이 文物을 만들어 사람을 이롭게 함을 가리켜서 《繫辭上》(第十一章)에서는 “備物致用, 立成器以爲天下利, 莫大乎聖人.(物을 갖추어 씀을 지극히하고, 새로이 組立하여 그릇을 이루어 천하의 이로움으로 삼는 것이

15) 《繫辭下》(第二章)에서 “作結繩而罔罟, 以佃以漁, 蓋取諸離. 斷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蓋取諸益.”이라 하였다.

聖人보다 큰 것이 없다.)"이라 하였다.

聖인이 象을 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다스린다. 《繫辭下》(第一章)에서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吉凶은 바르게 하여서 이기는 것이고, 天地의 道를 바르게 하여 보는 것이며, 日月의 道를 바르게 하여 밝히는 것이니, 聖인이 天下를 움직이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 그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貞은 正과 뜻이 통하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天地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繫辭上》에서 “聖人以此洗心.(聖인이 이로써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라고 하였으며, “聖人以此齋戒, 以神明其德夫.(聖인이 이로써 (몸을) 齋戒하여 그 德을 神明케 한다.)”라고 하였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는 이치를 세밀하게 궁구해야 하니 《繫辭上》(第十章)에서 “夫易, 聖人之所以極深而研幾也, 唯深也故, 能通天下之志, 唯幾也故, 能成天下之務, 唯神也故, 不疾而速, 不行而至.(무릇 易은 聖인이 깊은 것을 다하고 기미를 궁구하는 바이니, 오직 깊기 때문에 능히 天下의 뜻에 통할 수 있으며, 오직 기미로써 하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이룰 수 있고, 오직 神妙하기 때문에 빨리하지 않아도 빠르며 가지 않아도 이른다.)”라고 하였다.

몸과 마음을 貞히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서 반성하고 덕을 쌓아서 지금을 준비하는 것이며, 기미를 살펴서 점을 치는 것은 지금의 찰나이고, 점의 내용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즉, 象學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時空을 떠나있는 理의 세계와 接하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繫辭下》(第六章)에서 “夫易, 彰往而察來, 而微顯闡幽.(무릇 易은 지나간 것을 드러내어 올 것을 살피고, 微微한 것을 드러내고 그윽한 것을 펼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비로운 성격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周易의 義理는 궁구하였지만 占과 관련된 象數¹⁶⁾에 대해서는 세상을 迷惑시키는 術數로 보고 경계하였던 것이다.

6. 象의 韓醫學의 適用

1) 인간에 대한 인식

醫學의 대상은 사람이다. 사람은 天地가 서로 교류하여 낳은 존재이다. 하늘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단지 日月星辰의 굳건한 運行을 통하여 그 象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 象을 통하여 우주 변화의 이치를 궁구한다. 그러므로, 天은 둥글다¹⁷⁾ 하고 理의 상징하는 대표가 된다. 땅은 그 위에 동서남북의 방위가 정해짐으로 인하여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萬物이 생성, 소멸된다. 그러므로, 地는 넓이를 의미하는 方으로 표현하고 形의 세계, 氣의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가 된다. 사람은 다른 萬物과 마찬가지로 氣의 集合을 통하여 태어나 時空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天理를 품부받아 간직하고 있으므로 氣의 변화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天理를 神이라 하니 사람은 神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정신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陰陽의 관계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몸이나 정신을 각각 독립적인 대상으로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일정한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데 몸의 상태만을 중시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매달릴 수 밖에 없다. 理와 氣의 유기적 결

16) 數는 象의 한 종류로서 숫자의 형식을 빌어 표현된 것이다. 그 속에 生成의 이치를 담고 있어서 數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이해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17) 하늘은 形象이 없어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단지 치우침이 없는(無極) 圓의 모양으로 대신하여 나타낼 뿐이다.

합체가 인간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象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象은 언어로서 정의내릴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논리적 언어들은 外物의 모양이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의 이치를 정확히 표현해 낼 수 없고, 비록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유와 상징의 방법을 이용한 것일 뿐이다. 결국,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은 바로 象을 통하는 것이다.

2) 醫學과 象學의 관계

醫學의 목표는 인간 생명의 원리를 밝히고 그것을 통하여 건강한 인간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생명의 원리도 곧 變化의 원리이며 運動의 원리이다. 생명체의 하나인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運動하고 變化한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 몸이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변화를 잘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우리 몸의 내면은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변화가 쉽게 외부로 드러나므로 우리 몸의 변화를 자각하게 된다.

의사는 환자로부터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여 내부의 상태를 규정하고 병의 진행을 예측하여 그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治者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의사가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지 않고 단지 무슨 병에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치료를 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병에 대처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람 몸도 인간 大衆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세밀히 살펴서 기미를 알아내어 미래를 예측해내지 못하면 다스릴 수 없다. 예를 들어 周易에서는 점을 쳐서 象을 취하고 그 象을 해석하여 “潛龍이니 쓰지 말라.”라고 하였다면,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여 “陰이 虛하니 陰精을 補하

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陰虛’는 ‘潛龍’이라는 象과 성격이 같은 것이다.

우리의 지식체계 속에는 단순히 事物의 특성을 지칭하는 言語가 있으며 潛龍이나 陰虛와 같이 象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前者를 卽物的知識이라 한다면 즉물적 지식들은 象을 표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비유하자면, 象이라는 커다란 집을 짓는데 즉물적 지식이라는 벽돌이 필요한 것과 같다. 그러나, 象이라는 집은 아무리 다양한 재료로 만들낸다 하더라도 그 形體를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주지 않는다. 象은 단순히 氣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理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의학을 배워서 ‘陰虛’라는 象을 자신의 마음 속에 정확히 구현해내려면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陰이란 말은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즉, 陰陽運動이라는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며, 사람의 몸에서는 精神氣血, 藏府經絡 등 여러 구성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그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였을 때 마음 속에 陰의 象이만 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象이라 할 수는 없다. 정확한 象의 근원은 醫學의 지식체계를 만든 聖賢들이다. 黃帝 內經을 지은 사람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는 우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인체의 원리를 궁구하였으며, 그로부터 象을 취하고 그 象을 언어로 표현하였으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다양한 변화를 그 象으로부터 풀어내어 설명한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象은 陰陽의 象이다.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精神氣血, 藏府經絡, 筋骨肌肉 등도 모두 象이다. 象은 원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韓醫學 用語들을 象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단지 언어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한 象이고, 정확한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른바 과학적 용어는 아닌 것이다. '潛龍'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象은 비록 그것이 가리키는 對象이 있으나 事物 變化의 흐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卽物的 用語는 아니다. 만약, 그것을 인간의 논리적 선입관 속에서 해석하려한다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 時空의 조건이 바뀌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陰陽에 대한 설명이 여러 곳에서 서로 모순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 속에 담긴 理는 같다. 理는 같은데 다른 조건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므로, 조건에 얽매어 그것을 보려한다면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불꽃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다. 이 명제는 두가지 물과 불에 대한 이치를 각각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물, 불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의하여 달라진 것일뿐 두 명제의 저변에 있는 변화의 理는 하나이다. 맑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며 탁하고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정확한 象을 觀하여야 그것을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名醫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孟子가 孔子님을 가키려 "聖之時也."라 하였으니 聖인이 이치를 깨달아 時中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象을 얻은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外物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萬物은 모두 고유의 象을 가지고 있다. 象은 理를 드러낸 것이지만 그 대상(物)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事物의 본질을 파악하는데는 좀더 근본적인 象인 陰陽五行을 가지고 觀하게 된다. 우리가 事物을 인식하는데에도 量的인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과 象을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몸무게, 신장, 외모의 善惡 등이나 또는 가정환경, 학력, 경력 등으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量的인 정보로서 객관성을 갖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정확히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비록 주관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나, 그 사람의 취향, 행동양식, 성격, 또는 몸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사람의 象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陰陽五行, 四象, 藏府經絡 등의 象을 가지고 그 사람 고유의 象을 파악했을 때 그것에 의한 현실에서의 활용도가 커지는 것이다. 그 사람의 정확한 象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질환이 오더라도 그에 대처가 가능해진다.

치료를 할 때에도 환자가 드러내는 象에 맞추어 처방을 하고 침을 놓게 된다. 陰이 虛하다면 陰을 보충해주는 약을 준다. 藥도 고유의 象을 가지고 있는데 그 象은 酸苦甘辛鹹의 五味와 寒熱溫涼의 四氣로 표현된다. 이 때의 四氣五味도 그 자체로 象으로서 공부들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다¹⁸⁾. 즉, 象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시 언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象을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 본초학이란 각각의 약물이 가지고 있는 象을 정확히 밝혀내어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와 같이 四氣五味의 象으로 事物의 본성을 규정짓고 분류하는 것을 比類取象이라 한다. 象을 가지고 비교하여 분류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하나의 象으로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比類取象의 방법은 한의학에서 事物을 인식하는 과정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상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醫學이 우주

18) 五味 자체가 陰陽五行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象이다. 예를 들어 "辛甘發散爲陽, 酸苦滲泄爲陰"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甘味는 단순히 화화적으로 단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陽의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의 이치를 대상으로 하는 周易과 마찬가지로 象學의 성격을 갖게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天人相應의 원리에 있다. 인간이 天地를 본받아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났으며, 우주의 운행 원리에 따라서 생명을 유지해나가는 것을 天人相應이라 한다. 天地와 사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形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理를 담고 있고, 그 변화도 우주와 마찬가지로 陰陽五行¹⁹⁾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우리 몸의 다양한 구조와 기능이 결국 그 이치를 궁구해들어가면 陰陽五行의 원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辨證論治 체계

사람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의학 공부의 출발점이라면 그것이 현실 속에서 활용되어 나타난 결과로 바로 질병의 치료이다. 한의학에서는 질병 치료에 있어서 어떠한 병인가에 기준을 두지 않고 證을 변별하여 그에 따라 처방하는 독특한 과정을 행하고 있다. 證이란, 病因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몸 속에 어떠한 이상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病이 어떻게 變化되어 가는가 등에 대하여 陰陽五行, 精神氣血, 藏府經絡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구성해낸 하나의 인식 체계이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표현은 간단하다. '陰虛' 또는 '太陽病' 등과 같은 짤막한 용어들로 표현된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많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이유는 證 자체가 바로 하나의 象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로부터 四診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어내고 종합한 뒤, 의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觀하여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象을 알아내는 것이다. 象은 理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象을 통하여 이치를 파악하게 되면, 그에 따

라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의 변화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그 질환의 예후를 판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辨證 방법에 비하여 어떠한 병인가를 먼저 규정하고 그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辨病治療라고 한다. 辨病治療 체계는 우선 각각의 疾病을 분류하고 그것의 定義를 내린다. 그리고, 환자의 이상 상태가 어떠한 병에 해당하는가를 검사하여 양자의 identity가 일치하였을 때 병의 종류를 확정짓는다. 여기서 질병의 identity는 세밀한 임상 관찰을 통한 경험적 지식들로 구성되며, 질병에 대한 치료는 따로 약리학적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辨病治療의 한계는 그 대상을 病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病은 事物과 마찬가지로 氣의 變化가 단지 특정한 時間과 空間 속에 외부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만약 조건이 바뀌어서 病의 양태가 변화한다면 그에 따라 病을 다시 규정하고 대처해야 한다. 辨病의 분류 체계가 번잡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다양한 변화를 쫓아서 일일이 대응한다면, 그것은 효율이 낮은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證은 象의 하나로서 그 속에 이치를 담고 있으므로 치료 방법도 그에 맞추어 결정되지만, 辨病治療의 '病'은 단순히 질병의 외형적 특징만을 규정한 것이므로 뒤따르는 치료 방법이 이와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證은 象이기 때문에 언어로 정의내릴 수 없다. '陰虛'나 '太陽病'이 갖는 의미를 언어로서 정확히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傷寒論》에서 脈이 뜨고 뒷목이 뻐뻐하고 아프며 으슬으슬 추운 증상들로 太陽病의 강령으로 삼았으나, 그것은 대체적인 기준일 뿐 정의가 될 수는 없다. 위의 증상

19) 陰陽과 五行은 모두 理를 표현한 象으로 五行은 내부 運行的 원리이며 陰陽은 그것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들 중 하나가 없다고 하여 太陽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그것으로 강령을 삼은 것은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내부의 機轉이 바로 太陽病의 象임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그 증상들의 機轉을 연구하여 올바른 太陽病의 象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證을 간단히 정의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지만, 단지 증상들을 조합하는 집합론적 정의에 그칠 뿐이다. 즉, '陰虛'란 오심열(五心熱), 조열(潮熱), 도한(盜汗), 요단적(尿短赤), 요통(腰痛), 맥세삭무력(脈細數無力) 등의 개별적인 증후들로 조합된 집합이 아니라 각각의 증후를 일으킬 수 있는 내면의 기전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象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象을 궁구하는 공부를 통하지 않으면 정확한 辨證論治의 시행에까지 이를 수 없는 것이다.

4) 醫學 공부의 방법

醫學이 象學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부 방법도 같다. 醫學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해나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 이치는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며 우리는 그 속에서 象을 취하여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이미 先賢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치를 밝혀 놓았으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 놓았다. 지금까지 지은 책들은 수없이 많지만 이치를 담고 있는 책들 즉, 象을 내포한 말들로 이치를 설명하고자한 책들은 많지 않다. 같은 한의학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쓴 사람이 그 말에 담긴 이치를 제대로 알고 썼는가에서 달라진다. 이치를 담고 있는 근본이 되는 典籍들을 공부하여 그 속에 담긴 개념들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韓醫學用語들이 가지고 있는 象을 거꾸로 만들어가

는 것이다. 책을 보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象을 취하고, 그 象을 가지고 다시 책의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象은 실제 임상 치료 과정 속에서 徵驗된다. 理를 담고 있는 象이 현실의 다양한 상황변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식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內經과 傷寒論 이후 金元四大家의 출현 이전까지는, 原典에 담긴 한의학적 이치와 임상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陰陽五行의 이론은 空理로 변질되고 치료는 方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와는 달리 金元四大家들은 內經과 傷寒論에 담긴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陰陽五行의 象을 取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인간 내면의 생리, 병리를 觀한 것이다²⁰⁾. 主火論, 補土論, 相火論, 陽有餘陰不足論 등등은 모두 象學의 결과물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이 四大家가 수많은 임상 현실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것임을 물론이다.

醫學 공부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象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선입관을 가지고 事物을 바라보아서는 정확한 象을 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선입관은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에 의하여 취사선택된 것이 많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면 오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貞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 수련을 통하여 몸을 건강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올바른 象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0) 인체 내부의 藏府經絡의 理를 추구한 점은, 人間의 本性과 宇宙의 天理와의 관계를 궁구한 宋代의 人本主義적 세계관 즉, 性理學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III. 結論

1. 事物 인식의 목표는 그 속에 담긴 理를 알아내는 것이며, 모든 事物의 이치는 궁극적으로 宇宙變化의 原理로 귀결된다. 이 理는 時空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事物의 변화를 통해서만 외부로 드러날 뿐이다.
2. 우리가 事物의 이치를 쉽게 알 수 없는 이유는 욕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궁극의 理를 깨닫는 방법은, 德性을 기르는 동시에 事物로 나아가 세심히 그 변화를 觀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3. 구체적인 事物의 변화를 통하여 理를 窮求하지만, 외부로 드러난 면에만 얽매 있다면 理를 볼 수 없으므로 결국 象을 통하여 이치를 깨닫게 된다. 象은 理와 物의 중간자로서 양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理에 가까우면서도 어떠한 구체적 事物을 그 대상으로 하며 物에 가까우면서도 사람의 논리사고로는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 상징이나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心象이 있으며, 그것을 간략하게 기호로 표현한 象이 있으며, 다시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象이 있다. 기호로 표현된 象에는 卦象, 爻象이 있으며, 언어로 표현된 象에는 繫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象의 특징은 그 자체를 논리사고로 풀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5. 象을 통하여 구성된 학문체계를 象學이라 한다면, 象學의 과정은 理를 궁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事物로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는 格物致知의 방법과 몸과 마음을 닦아 바르게 하는 尊德性의 방법을 병용하여 이루어진다. 象學의 궁극적인 목표는 事物의 이치를 깨닫아 이것을 다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구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상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象學은 聖人の 학문이요, 治者의 학문이라 할 수 있다.
6. 醫學은 대상은 理와 氣의 통합체인 사람이므로, 理氣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象을 통하여 사람의 이치를 궁구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用語들은 모두 언어의 형식을 빌어 표현된 象으로서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卽物的 知識이 아니므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象學의 과정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7. 질병 치료의 중심이 되는 辨證論治 체계는 바로 象과 象의 관계로 이루어진 학문 체계로서 한의학에서 證이란 바로 우리 몸 속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기전을 포괄하는 象의 한 종류이다. 또한, '病'을 치료의 기준으로 삼는 辨病治療 방법은 理보다는 밖으로 드러난 事物의 現狀에만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궁극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辨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象을 궁구하는 공부과정이 반드시

시 필요하다.

8. 醫學 공부의 방법은 먼저 몸과 마음을
貞히 하여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없
애고, 다시 聖賢의 典籍을 공부하여 각
각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象을 取하며,
그것을 임상에 적용하여 현실 속에서
微驗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白殷基: 譯註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2. 金碩鎭: 대산주역강의. 서울, 한길사, 1999
3. 중국철학연구회: 논쟁으로 보는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4
4. 김형찬외 2인: 양명학-왕양명에서 응십력까지. 서울, 예문서원, 1994
5. 朴鍾浩: 노자철학. 서울, 일지사, 1990
6. 임채우: 주역왕필주. 서울, 길출판사, 1998
5. 孟子集註. 서울, 명문당, 1983
6. 大學集註. 서울, 명문당, 1986
7. 中庸集註. 서울, 명문당, 1986
8. 白敏禎: 朱子 易學의 象數와 義理에 대한 研究, 연세대학교대학원, 1998